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83

별을 따라 간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2:1~23)

아기예수가 유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난 그날 밤
멀리 떨어진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별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과학 박사들이었는데
흔히 ‘동방박사’라고 불리죠.

“허, 아무리 봐도 이상하구만.
저토록 밝게 빛나는 별을 본 적이 있소?”

“유독 밝게 빛나는 별이라.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음이 틀림없소이다!”

**“별의 위치를 보니
유대 땅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께서
태어난 게 아닐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중의 왕 구세주 말이요?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요
어서 그분을 찾아가 경배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귀한 선물을 낙타에 싣고
서둘러 유대 땅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긴 여정 끝에 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죠.**

**“이보시오, 말씀 좀 묻겠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는 곳이 어디니까?”**

“우리는 그 분께 인사드리러 멀리 동방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제국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아닌 다른 왕은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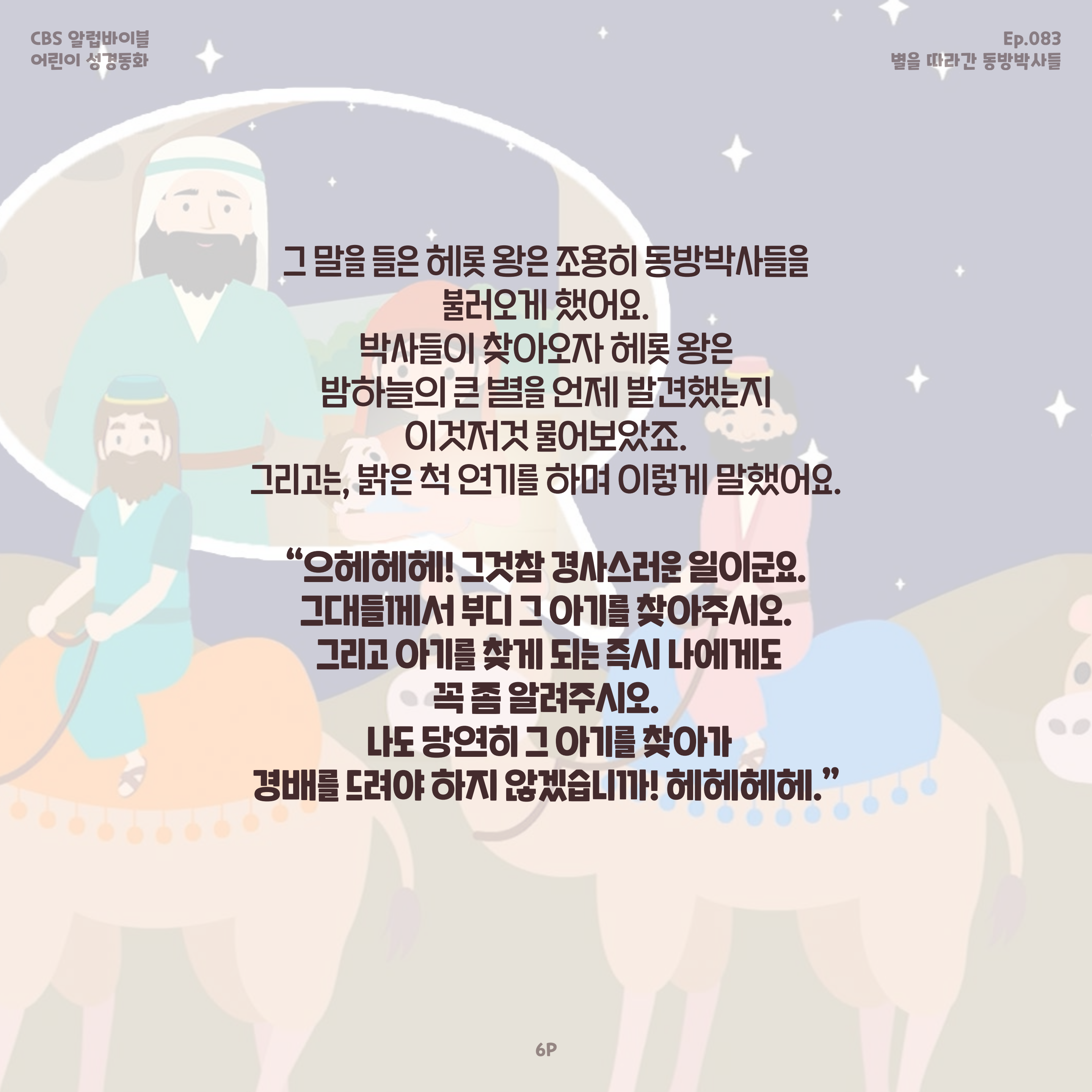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새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뭐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이 헤롯을 두고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게냐?
몸쓸 녀석들...”

헤롯 왕은 화가 났지만 금세 화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잘 아는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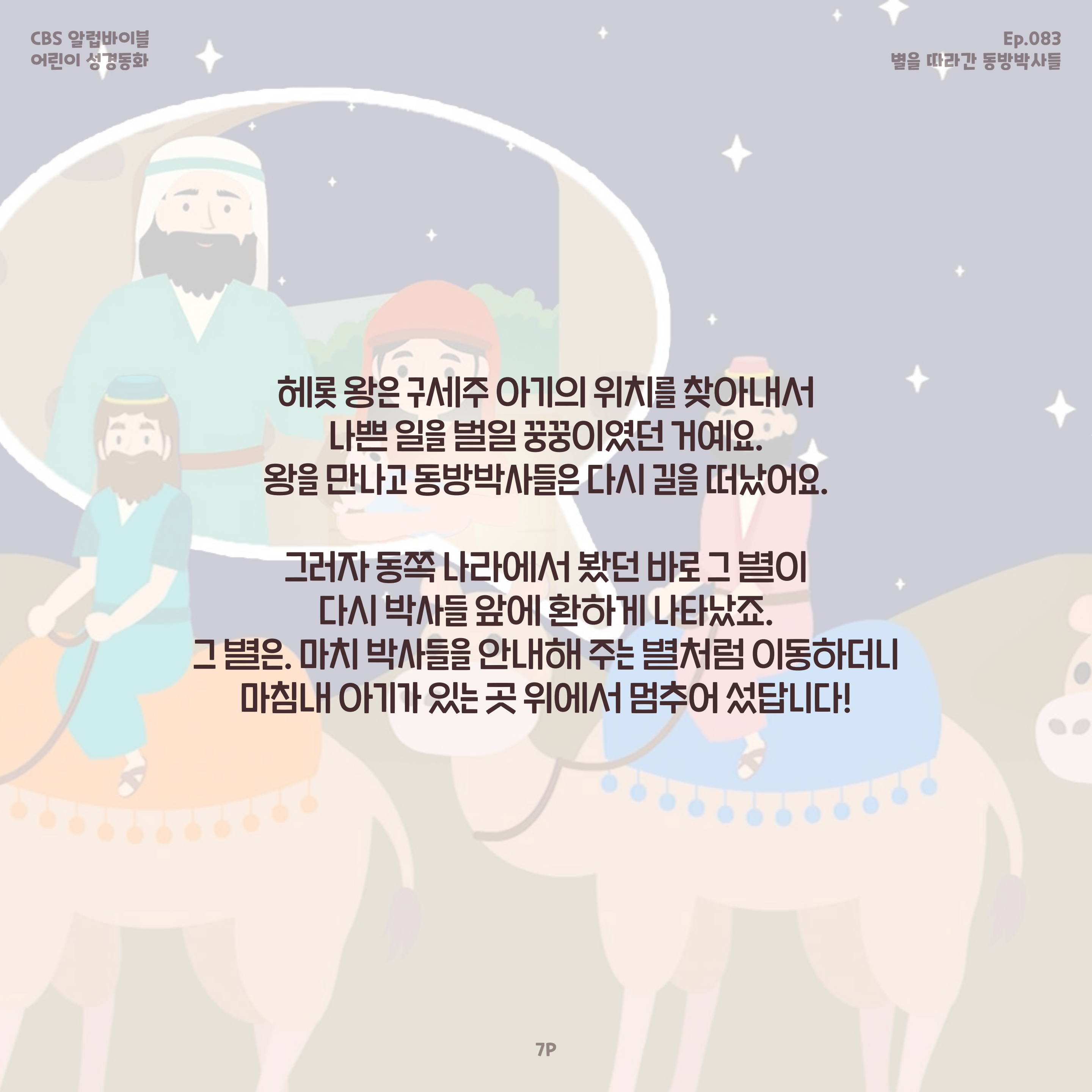
**“그래, 그 ‘유대의 왕’ 구세주라는 자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돼 있느냐?”**

**“예전에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니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 분께서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조용히 동방박사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박사들이 찾아오자 헤롯 왕은
밤하늘의 큰 별을 언제 발견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그리고는, 밝은 척 연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으헤헤헤! 그것 참 경사스러운 일이군요.
그대들께서 부디 그 아기를 찾아주시요.
그리고 아기를 찾게 되는 즉시 나에게도
꼭 좀 알려주시요.
나도 당연히 그 아기를 찾아가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헤헤헤.”**



헤롯 왕은 구세주 아기의 위치를 찾아내서
나쁜 일을 벌일 궁궁이었던 거예요.
왕을 만나고 동방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봤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박사들 앞에 환하게 나타났죠.
그 별은. 마치 박사들을 안내해 주는 별처럼 이동하더니
마침내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답니다!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
한 집이었죠.

“제십니까.”

동방박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과연 집에는 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오...! 저 아기, 아니, 저분이시로군요!
저분이 바로 왕이시로군요!”

“어서 저분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립시다...!”

동방박사들은 정중히 아기 예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준비해 온 귀한 예물들을 선물로 드렸죠.

“이것은 왕께 드리는 황금입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유향입니다.
이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몰약’이라는 귀한 약재가 들어있습니다.
왕이여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날 밤, 박사들은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어요.
빛 가운데 큰 소리가 들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꿈이었죠.**

“너희는,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냥 돌아가거라.”

박사들은 이 꿈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헤롯 왕을 만나는 대신
곧장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요셉도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는

“어서 일어나거라 요셉!
지금 바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단다.”

깜짝 놀란 요셉은 한밤중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를 향해 떠났어요.
그리고 천사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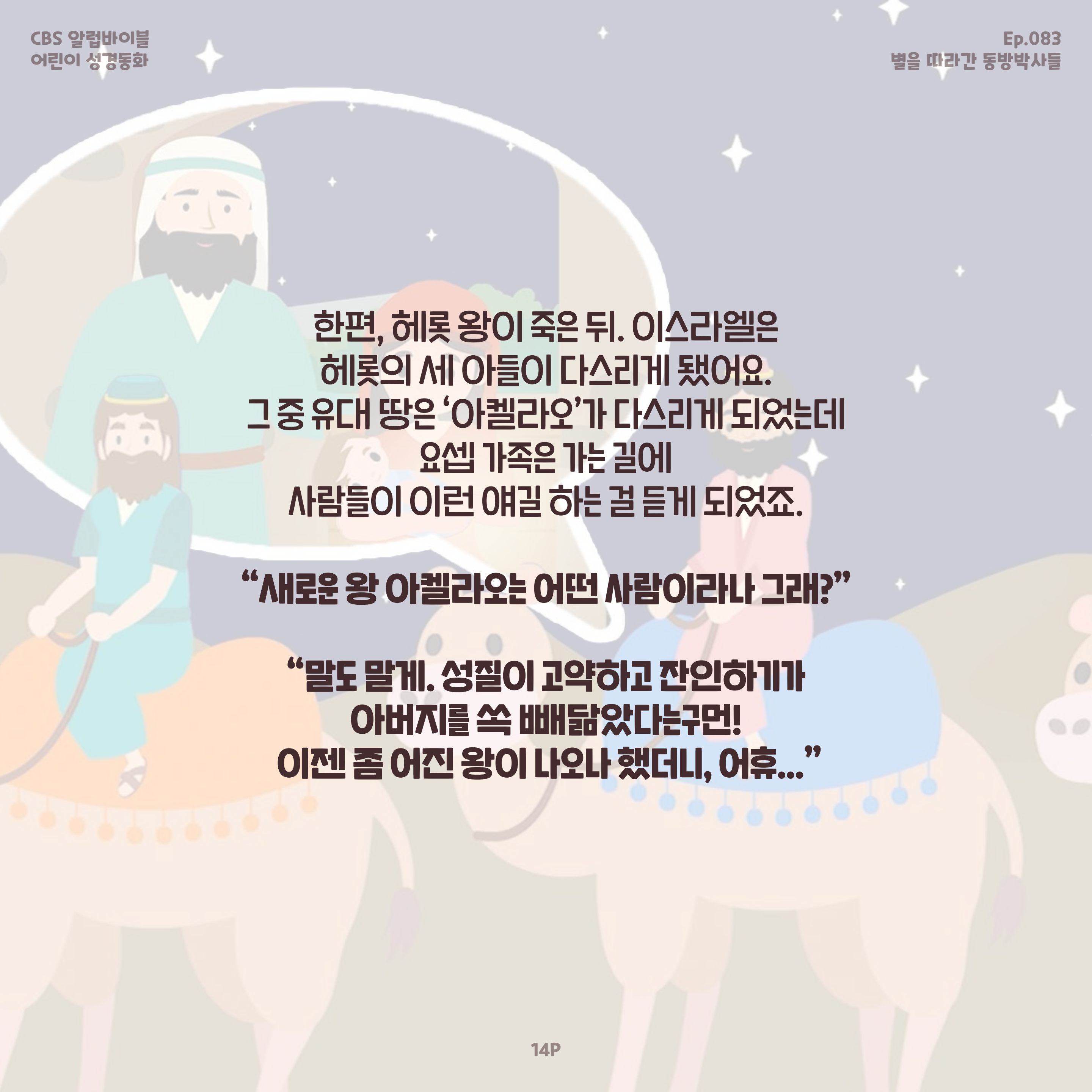
**“동방박사인지는 뭔지
이 녀석들이 감히 나를 속여?
오냐,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해주마.
여보라,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들을 샅샅이 찾아서
모두 없애 버리거라!”**

**베들레헴은 금세 슬픔의 마을이 되었어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헤롯은, 정말 잔인한 왕이었어요.**

몇 년 동안 요셉 가족은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났죠.

“요셉아,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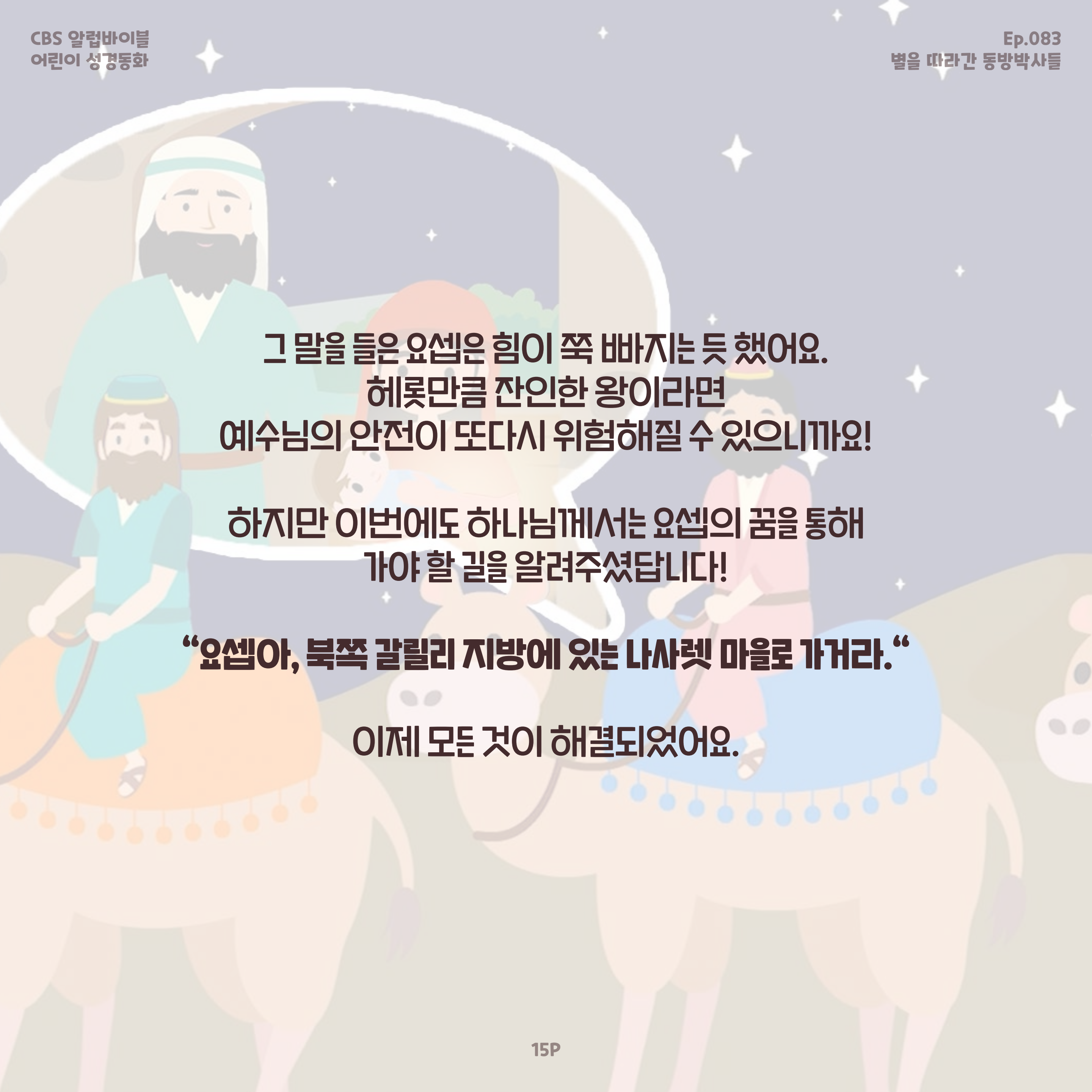
잠에서 깬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낮선 땅을 떠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게 됐으니가요.



한편, 헤롯 왕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헤롯의 세 아들이 다스리게 됐어요.
그 중 유대 땅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되었는데
요셉 가족은 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런 얘길 하는 걸 듣게 되었죠.

“새로운 왕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이라나 그래?”

“말도 말게. 성질이 고약하고 잔인하기가
아버지를 쏙 배배뺏았다는구먼!
이젠 좀 어진 왕이 나오나 했더니, 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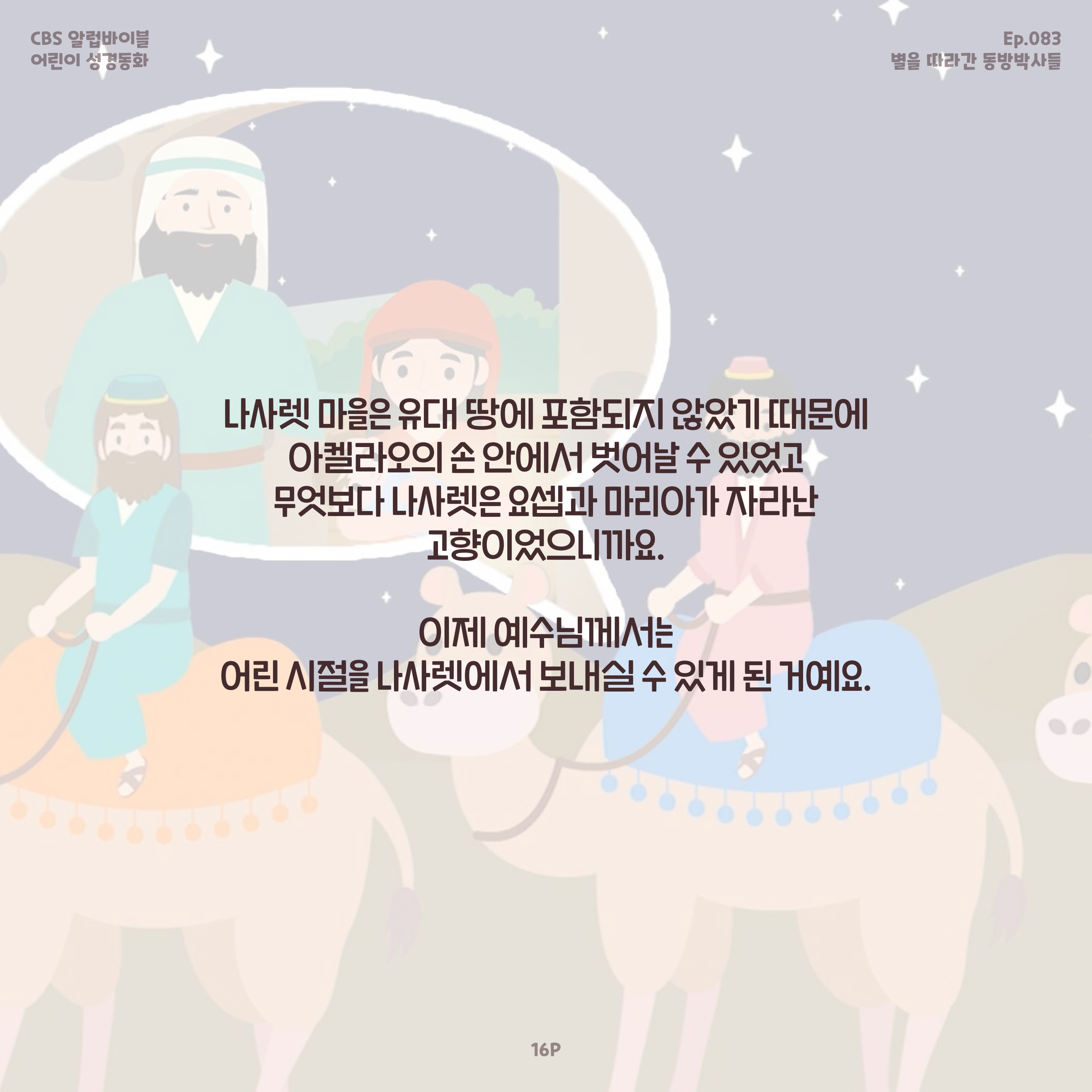


그 말을 들은 요셉은 힘이 쭉 바빠지는 듯 했어요.
헤롯만큼 잔인한 왕이라면
예수님의 안전이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아,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마을로 가거라.”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나사렛 마을은 유대 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켈라오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자라난
고향이였으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실 수 있게 된 거예요.